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46 “우리도 편다”



제43회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농협 담양군지부(지부장·김보영) 직원들이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직원들 한마음으로 뭉쳐 최우수 지부 2연패 도전”

■ 농협 담양군지부

“3·1절 전국마라톤 대회는 전 직원의 건강을 챙기고 화합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는 3월 1일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일보 주최 ‘제43회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농협 담양군지부 직원들의 한 목소리다.

농협 담양군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직원 23명이 대회 참가를 신청했다.

김보영 지부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대회에 참가했는데 대회를 마치고 음식점에서 뒤통이로 단합대회를 갖다보니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뭉치는 효과를 봤다”며 “마라톤 대회가 지난해 우리 군지부를 농협중앙회의 ‘종합 업적평가’에서 최우수 지부로 올

두번째 참가...23명 전직원 출전

려놓는 발판이 됐다”고 말했다.

김귀남 팀장도 “3·1절 마라톤 대회가 시기적으로 농협 인사가 마무리 된 뒤에 열려 새로 구성된 직원들의 화합을 다지는데 그 만연했다 자연스럽게 건강도 다지는 계기가 돼 올해도 전 직원이 참가하게 됐다”고 참가 배경을 설명했다.

참가 연령은 20대 신입사원부터 50대 지부장까지 다양하지만 전 직원들의 단합된 의지를 반영하듯 참가 코스는 5km로 모두 같

다. 지난해와 다른 것이 있다면 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입사한 김기정·최성은·김광자(여)·김은미(여)씨 등 새내기 직원 4명이 올해 처음으로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김기정(26)씨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강원도 삼척이 고향이지만 지난해 광주에 사는 누님의 영향으로 전라도와 인연을 맺은 후 자연스럽게 농협을 지원하게 됐다.

김씨는 “첫 근무지로 담양에 와 보니 선·후배사이에 따뜻하게 챙겨주는 직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며 “이번 마라톤 대회가 화합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돼 나를 포함한 전라도 사람이자 농협맨으로 만들것 같다”고 말했다.

농협 담양군지부는 3·1절 마라톤 대회를 담양 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관측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대숲맑은’ 쌀·딸기·한우도 알려야

3·1절 마라톤 대회가 호남에서는 가장 먼저 열리는 최대 규모의 대회인 만큼 많은 참가자들과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정 대나무골 담양의 농산물 브랜드인 ‘대숲맑은’ 쌀과 딸기, 한우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보영 지부장은 “3·1절 마라톤 대회와 우리 농협의 한 해 사업연도 시작이 비슷해 직원들의 단합을 다지는 기회로 제격”이라면 “내년에는 가족들까지 참가시켜 건강과 화합을 군지부 직원들의 모든 가정에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07/08 V리그 여자부<흥국생명 : 현대건설>(16 : 30-KBS N SPORTS)남자부<현대캐피탈 : 한국전력>(19 : 00-KBS N SPORTS)
SBS스포츠·XSPORTS 16일(수)
▲07/08 잉글리시 FA컵 3R(리버풀 : 투톤타운)(05 : 00-MBC ESPN)



KIA 전훈캠프 광에선...

용병 리마 “V10 한 몫 해야죠”

특유 뇌살로 ‘호랑이굴’ 적음 고강도 훈련에도 ‘솔선수범’

지난 9일부터 광에서 ‘V10’ 담금질에 들어간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본격적인 훈련을 벌이고 있다.

선수단은 ‘3일 훈련·1일 휴식’의 스케줄에 맞춰 체력·전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지훈련 초반인 만큼 체력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입국을 서둘렀던 외국인 투수 호세 리마(36)는 특유의 뇌살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해 훈련장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리마는 선수단 미팅 자리에서 발언권을 요청해 “먼저 나를 불러 준 팀에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하고, “KIA가 9번의 우승을 한 팀으로 알고 있다. 올해는 꼭 우승하자”고 파이팅을 외쳐 선수단의 박수 세례를 받기도 했다. 운동 좀 삼삼하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훈련에도 열심이다.

그러나 몇몇 주전급 선수들은 몸이 좋지 않아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KIA의 외국인 투수 호세 리마(왼쪽에서 두 번째)가 광 파세오 구장에서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몸을 풀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지난해 12월 팀에 합류한 서재응은 정상적인 투구가 힘든 상황. 국내 복귀 과정에서 4개월가량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지 못해 겨우 캐치볼을 하는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3월 초 정상 투구에 초점을 맞춰 개별 훈련을 하고 있다.

최희섭도 체중이 부는 바람에 체중감량을 위한 러닝과 웨이트에 치중하고 있다. LA에서 개인 훈련을 했었지만 시즌이 끝난 후 4

주간 군사 기본훈련과 파혼 등의 여파로 훈련량이 부족했던 탓이다.

13일 첫 휴식날을 맞아 물놀이와 소풍, 관광 등을 즐기며 달콤한 휴식을 취했던 선수단은 이달 29일까지 광 파세오구장에서 기초 체력훈련과 기술향상 훈련을 할 계획이다. 이달 31일에는 일본 미야자키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전술 훈련에 들어간다.

/김여용기자 wool@kwangju.co.kr

나주중·화순초 크로스컨트리 우승 전남도교육감기 스키대회

화순초등 남·여가 제7회 전라남도교육감기 스키대회 크로스컨트리 단체전에서 1위를 싹쓸이 했다.

화순초등 남(이원태·오재민·이현호·강혜준)과 여(이유진·이원지·윤민지·배민주)는 14일 무주리조트스키장에서 열린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여초등부에서 각각 우승했다.

중등부에서는 나주중(김승혁·이정환·박상원·윤한홍)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열린 알파인 초등부 남·여에서는 김순원(광양제철초 3)과 이효진(순천신희초 3)이 각각 25초 25와 56초로 우승했다.

중등부에서는 여인성(곡성중 2)과 강하리(순천팔마중 3)가 각각 23초05와 25초41로 결승선을 1위로 통과했다.

또 고등부에서는 서준형(순천고 2)과 이한샘(순천제일고 2)이 각각 22초57, 25초18로 우승을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4일 전라북도 무주리조트스키장에서 열린 제7회 전라남도교육감기 스키대회 알파인대회 전경기에 출전한 순천 연향중 이한샘이 기문을 통과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김재철 체육회사무총장 사표 수리 빠르면 다음 주중 후임 선출될 듯

한국 엘리트스포츠 실무를 총괄하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빠르면 다음 주중 새로 선출된다.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은 14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말 물러날 뜻을 밝힌 김재철

사무총장의 사표는 오늘 수리됐다. 빠른 시간에 후임자를 물색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새 사무총장을 인선하겠다”고 말했다.

영양 출신인 전임 김재철 사무총장은 2005년 3월 김정길 체육회장 당선 직후 공개모집을 통해 사무총장에 선출됐으나 지난 연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총장은 오는 4월 18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화)

Advertisement for Kyuten (큐텐) featuring a mother holding a child and text describing the product's benefits for children's health.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Kyuten Korea.